

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단순한 삶과 생각



이 세 나

- 1981년 5월 생
- 서초고등학교 졸업
- 숭실대학교 법대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수험기간도 짧지 않고, 별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글이 저와 같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사법시험을 결심하기 까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학교 가는 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서 법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겁이 많이 성격이라 막상 법대에 입학하고서는 오히려 사법시험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와 영어공부 등을 하였을 뿐 사법시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학년 2학기가 되어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 고등학교 때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 생각났고, 한 달여의 고민과 기도 끝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III. 수험기간

첫 번째 치룬 일차 시험은 이사한 다음날 이었고 준비기간도 짧아 그저 단순히 경험삼아 보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학원순환을 따라가면서 강의를 직접 듣거나 동영상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와 학원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처음 한 일 년은 통학하다가 이 후에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학원 순환을 따라가면서 꼼꼼히 외워야 할 부분은 스터디를 통해 서로 확인해 주면서 보완해

했습니다. 더디긴 했지만 조금씩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고 결국 3년차에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준비는 부끄럽게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비순환 학원강의를 들으며 학원순환은 따라가고 한 번의 2차 시험을 본 후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발표 때까지 익산의 언니 집에 내려가서 쉬엄쉬엄 공부했고 11월에서야 신입동으로 다시 와서 본격적으로 학원모의고사를 보면서 2차 공부를 했지만 마음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를 보는 것조차 겁이 나서 좀처럼 제대로 답안지를 작성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2차 시험기간이 되었으나 저는 마지막 민법 시험날 지나치게 긴장을 하고 팔이 굳어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고, 예상했던 문제들을 보지 않고 다른 부분의 책장만 넘기다가 완전히 시험을 망쳐, 역시나 민법이 낮은 점수로 과락이 나왔고 그 해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지만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떨렸다는 것을 느껴 그 다음 1차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2차 시험에서 떨어진 충격을 잘 털지 못하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져서 시험보는 내내 전혀 집중이 안 되고 문제가 읽히지 않아 결국 그 해 1차는 떨어지고 해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 같아 6월까지지는 2차 재학생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시험 전 봐야 할 케이스 책들만을 위주로 공부하고, 11월까지지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1월부터 다시 1차 시

험 준비를 하였고 다행히 1차에 합격하고 2차, 3차에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IV. 공부방법

1. 1차 시험

저의 1차 시험 준비방법은 처음 두해의 경우 너무 부족해서 합격한 해의 공부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권화입니다. 양은 방대하고 마지막 한 달에 선택과목까지 4과목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든 한권이 꼭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학원순환에 맞추어 처음에는 황보수정 선생님의 민법 동영상강의를 들어서 김형배 교수님의 책에 모든 판례까지 다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단권화를 하였고, 헌법은 금동흙 선생님의 책으로, 그리고 형법은 신호진 선생님의 책으로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판례와 이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밑줄을 그어서 눈에 띄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1회독은 천천히 하면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면서 문제의 지문마다 틀리거나 애매한 경우는 각각 표시를 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 순환 전에 단권화 한 책에서 판례만을 다시 한번 본 후 학원모의고사를 따라가면서 단권화한 책과 체크해둔 기출문제로 예습하면서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그 후 부터는 계속 단권화한 책을 보되 책 내용 옆에 확실히 아는 것은 엑스 표시를 작게 해놓으면서 보고 중요한 것과 자주 잊고 헛갈리는 내용은 별표를 해두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둠으로써 만약에 마지막에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는 마음의 위안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삼법은 각 이를 씹 보고 선택과목은 하루 본 후 다시 삼법을 각 하루 씹 보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이때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책을 보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보면서 볼 수 있는 만큼만 최대 보았습니다. 1차 시험 전날은 삼법의 최신판례와 암기를 위해 정리해 두었던 것을 보고 시험날의 컨디션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삼시 때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재시의 경험이 있어 3순환 모의고사를 할 것도 생각했으나, 시험 전에 조금 더디더라도 한번은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아서 후사법은 동차반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학원을 겹쳐서 후사법을 3순환 삼법모의고사 시작 전에 다 듣도록 하고 수업시간에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로 오전에 강의를 듣고 두 과목을 듣는 날은 오전, 오후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복습은 저녁에 하고 밤 11시에 친구와 운동 삼아 걸으면서 그 날 범위의 중요논점의 확설과 판례를 서로 번갈아 말하며, 외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공부 방법이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 밤마다 친구와 그 날 외운 범위를 운동하면서 함께 복습했던 것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마

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삼법 3순환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은 스터디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또 식후 간단히 산책하면서 그날 본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 또한 잠시간을 활용하고, 산책하면서 기본전환도 되어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7과목이나 되고 짧은 시간에 생각이 나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답안지에 옮길 수 있는 만큼의 최소량을 기본적으로 정확히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스 책을 기본으로 해서 2010년에 스텐터를 통해 만들어 둔 케이스책을 기본으로 하고, 동차반을 들으면서 새로운 판례와 필요한 것 등을 보완하여 외워야 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참고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 때 제가 이용한 케이스 책은 민법은 박승수 변호사님 케이스 책을, 헌법은 정희철 교수님 저서로, 형법은 이재상 박사의 형법 케이스의 바이블을 헌책방에서 구해서 보았습니다. 후사법은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강사님, 행정법은 성봉근 강사님, 상법은 김혁봉 강사님의 책을 보았고, 형사소송법은 신이철 선생님이 나눠주신 케이스자료로 3순환까지 공부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 시험전날 혼자 자신이 없어 전에 보았던 김정철 변호사님의 내 머릿속의 형소로 바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2차에서는 민법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데 비해 학원순환 상후사법보다 소홀히 될 수 있는데 따로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순환 이후부터 민법은 매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시간을 내어 사례의 논점을 잡아보았습니다.

또한 2차 시험에서는 실제 답안지를 시간 안에 작성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재시의 실패를 경험 삼아 삼시 때는 3순환까지 모의고사를 성실히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의고사는 3순환까지만 하고 이후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는 것보다 시험 전까지 개인적으로 정리한 케이스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전날 빠르게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험이 얼마 안남은 즈음에 다시 정확히 암기 해두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재시 때 경험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공부를 방해했기 때문에 케이스책을 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대신에 계속 혼자 하면 능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 자습스터디를 하고, 저녁은 스터디친구와 먹으면서 서로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신입동 고시원에서 자고,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시험장소는 한양대였습니다. 2차 시험전날은 헌법과 행정법을 빠르게 한 번 보고 12시에 잠자리에 누웠으나 3시 즈음 겨우 잠이 들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버스를 놓쳐 지하철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시험시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세 번 째 여서 인지 마음을 금방 가다

듬고 잠깐이라도 헌법의 기본적인 암기 사항을 보았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은 계속 5시간씩 자고 차속에서 쉬고, 저녁은 매우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점점 다음날 시험과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차근차근 보았습니다. 저는 글씨쓰는 속도가 느려 시간 안에 항상 다 채우지 못했고, 논점을 잘못 봐서 중간에 지우고 다시 쓰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 시험준비시 필요한 태도

사법시험이 적은 점수차이로 당락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마인드 컨트롤과 좋은 생활태도가 필요한데, 제 경험상 시험준비시 필요한 태도를 몇 가지 적어봅니다.

먼저, 약간의 뻘뻘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대학 다닐 때 주로 아르바이트로 제 용돈을 해결해 왔던 터라 부모님께 학원비며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용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죄송하더라도 조금은 뻘뻘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밖에 없고, 후회할 일은 생깁니

다. 물론 과거의 성찰이 동기부여와 변화를 주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어차피 지나간 시간이라면 과감히 잊고 지금에 충실하는 약간의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이고 단순한 생활과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저는 때때로 안일해졌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였는데 이것이 수험기간이 길어진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계획과 일주일, 그리고 일년치의 대략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더욱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 처음에는 많이 세우고 계획대로 하지 못해 공부에 쫓기곤 했는데, 나중에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서 최소한의 계획과 시간이 남을 경우의 플러스 계획을 같이 세워 최소한의 계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 성취감을 높이고 플러스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하여 공부에 쫓기지 않도록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잠을 얼마만큼 자는 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스타일과 체력에 맞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잠이 많아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 새벽 2시쯤 자고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하루 5시간 내지 6시간 자기를 시도해 봤지만 한 두달 하면 그 이상은 종종 어지러워져서 지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8시간의 취침이 가장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단순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부끄럽게도 이런 저런 핑계가 많았습니다. 시험이 다가 올수록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자꾸 책상에 앉기 두려웠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에 자꾸만 도망가고 싶어져서 계속 다른 핑계를 찾았고, 그럴수록 나는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더욱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사람이 극에 몰리니까 더욱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작은 문제도 더욱 크게 느껴서 공부와 함께 여러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시에 이어 1차 시험까지 떨어지고 돌아보니 그저 지금 단순히 공부하면 되는 거였는데 하는 후회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험에 쫓기다보니 생각이 너무 좁아져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일 죽는다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내일 내가 죽을 것이고 지금 나는 공부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즐겁게 공부하자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게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살도록 애썼습니다.

한편 때때로 고시생도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이 여가

시간도 평일은 공부에 집중하고 주말에 여가시간을 가지는 등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해놓지 않으면 놀면서도 맘이 편하지 않고, 공부하면서도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공부에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신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가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공부하면서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후회가 밀려올 때 책상 앞에 붙여 놓고 한번 씩 읽었던 성경구절을 적을까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져 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져 뎀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1~3절)

VI. 글을 마치며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공부한 세월이 참 길기도 하고 그 때는 참 고달팠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욱 힘드실 줄은 알지만 지금을 성실히 준비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랜 공부기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믿어주시고 믿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스테디하고 함께 합격한 정미언니, 혜윤이 너무 고맙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박연옥 목사님, 이모, 그리고 삼촌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